

CNU ICEE

News Letter

Vol.29

9 2025
월 호

HOT ISSUE

-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Capstone Design 경진대회 개최
-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주관 소재 컨소시엄 한국공학교육학회 포상에서 다수 수상 성과

PROGRAM

- 소재컨소시엄 2025 G-TIP 1차 캠프
- 에너지소재분야 공통기초교육과정
- 바이오소재분야 이론 및 실무교육
- [육성] AI 리터러시 단기 프로그램



전남대학교 CNU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공학교육혁신센터



2025
NEWS

소재 컨소시엄 『2025 G-TIP』 개최, 亞 4개국 참여...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1기 캠프 성료



전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최한 '2025 GTIP(Global Team-based Innovation Project)'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1기 캠프가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캠프에는 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4개국 대학생들이 참여해 글로벌 팀을 구성하고, 앞으로 6개월간 공동 수행할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의 주제를 설정했다. GTIP 프로그램은 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 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융합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1차 캠프는 참가 학생들이 첫 대면한 자리에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팀워크를 형성하며, 실질적인 프로젝트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캠프 참가자들은 디자인 씽킹 워크숍과 아이디어 피칭 세션 등을 통해 초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으며, 각 팀은 설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 1월까지 캡스톤디자인 과제를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단기 체험을 넘어,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의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전남대학교 CNU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공학교육혁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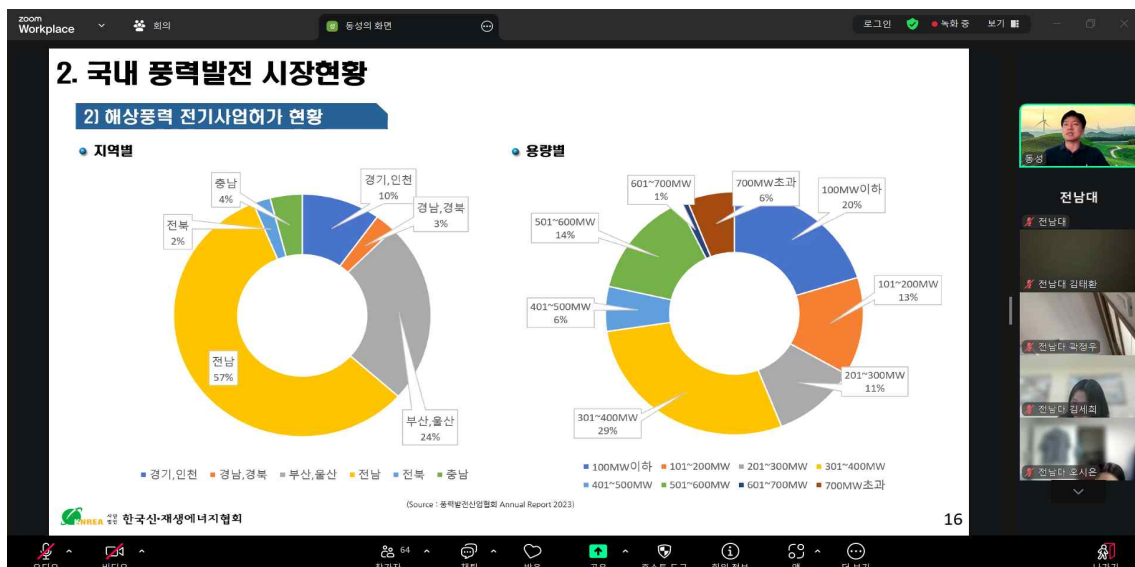


2025
NEWS

참가 학생들은 “디자인 활동부터 발표평가까지 다양한 세션을 통해 종합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받았다”, “초청강연, 학생 네트워킹, 팀 프로젝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이었다”며 이번 경험이 진로 탐색과 글로벌 협업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혁 센터장은 “GTIP은 단순한 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넘어, 아시아 청년들이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공동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내년에는 본 프로그램을 대학 내 여러 학부 및 기관과 연계해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 에너지소재분야 공통기초교육과정』 성료



전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간 “2025 에너지소재분야 공통기초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 교육은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전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 △분산에너지, △수소-연료전지, △탄소배출권 등 에너지소재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로 구성되어, 총 30시간의 집중 교육으로 이뤄졌다. 특히, 현업에서 활동 중인 산업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실무 중심의 생생한 교육을 제공했다.

소재 컨소시엄(전남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 국립순천대, 동신대)의 공학계열 재학생 총 55명이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참여 학생들은 “방학 기간 중 진로와 연계된 전문적인 배움을 얻을 수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 “현직자 강의를 통해 이론을 넘어 실무까지 연계된 학습이 가능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책으로만 접했던 내용들을 실제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니 훨씬 더 이해가 쉬웠고 유익했다”는 반응도 있었다.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와 실무·진로 이해도 측면 모두 98% 이상의 긍정 응답을 보여, 교육에 대한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에너지 소재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CNU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공학교육혁신센터



2025
NEWS

『2025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전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지난 8월 25일 2025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대회는 지난 8월 12일 내·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참가자들의 포트폴리오 종합본을 대상으로 ▲ 포트폴리오 구성 ▲ 학습활동 ▲ 학습외활동 영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공과대학 4호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을 수상한 산업공학과 장환석 학생을 비롯하여 9명이 참가하여 수상의 기쁨을 누렸으며, 장환석학생은 수상자 강연을 통해 본 대회 참가로 단순히 결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키운 역량과 맡았던 역할·행동을 스토리화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었다는 수상 소감을 남기기도 하였다.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이번 학생포트폴리오경진대회로 총 8명의 본상을 선정하여 해당 수상작은 9월 이후 공학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대학교 CNU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공학교육혁신센터



2025
NEWS

『AI 리터러시 단기 프로그램』 성료, 지역 대학 간 협력으로 소버린 AI 시대 인재 양성 시동



전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관한 지역 간 대학 협력 및 AI 인재 양성을 위한 『AI 리터러시 단기 프로그램』이 2025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국립군산대에서 총 30명의 학생이 참여해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실습하고 협업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본 교육은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시대에 대비해 학생들의 기초적인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소버린 AI 기술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또한, 권역 내 대학 간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지역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형 AI 에이전트 개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집중했다.



전남대학교 CNU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공학교육혁신센터



2025
NEWS

특히, 소버린 AI 및 AI 에이전트 산업·취업 전망 강연뿐만 아니라 멀티턴 대화, 멀티스텝 DB 증강, 함수 호출, 플랫러닝 등을 활용해 회의실 예약, 날씨 제공, 이메일 발송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실습이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에는 '실무형 AI 에이전트 개발 경진대회'가 열려, 총 22팀이 참여해 그동안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일상생활 및 실무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AI 기술로 구현했으며, 22팀 중 6팀의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실무 응용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로서, 참가자 전원이 AI 기술 자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김진혁 센터장은 "이번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AI 시대에 걸맞는 기술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CNU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공학교육혁신센터



2025
NEWS

『2025 Capstone Design 경진대회』 개최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지난 9월 5일 2025 Capstone Design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2025 Capstone Design 경진대회는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지원 중인 Capstone Design 프로젝트 수행작품에 대한 최종 성과물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기술개발 및 학습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총 40여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창의·융합성 ▲사회기여 및 사업화가능성 ▲기술성 및 완성도 ▲기획성 ▲성실도 및 협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예선평가를 통해 선발된 13팀이 본선대회에서 자신이 수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은 '시 기반 조류 추적 퇴치 레이저'라는 프로젝트 수행결과를 발표한 버드캐처팀(전자공학과/안재만 외 2명)이 수상하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전문적으로 전공과 관련하여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제작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하였다.



전남대학교 CNU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공학교육혁신센터



2025
NEWS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주관 소재 컨소시엄, 한국공학교육학회 포상에서 다수 수상 성과



전남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주관해 전남대·국립강릉원주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동신대 총 5개 대학이 참여하는 소재 컨소시엄이 한국공학교육학회가 주관한 『2025년 한국공학교육학회 포상사업』에서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소재 산업 컨소시엄의 주관대학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국가소재산업을 선도할 창의·융합기반 가치창출형 공학인재 양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며, 소재산업 특화 공학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포상에서 전남대 생물공학과 신수임 교수가 '제10회 여학생공학교육자상'을 수상했다. 신수임 교수는 전공 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 멘토링 활동을 통해 여성 공학 인재 양성과 다양성 증진에 앞장서 왔으며, 이러한 공로가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부센터장으로서 글로벌 캡스톤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하며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CNU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공학교육혁신센터



2025
NEWS

이와 함께, 컨소시엄 소속 국립목포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 강정원 교수가 '제12회 젊은공학교육자상'을 수상해 창의적 교육 활동과 공학교육 발전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여보구 학생은 '제23회 골드칼라 공학도상'을 수상해 공학 전문성과 융합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다.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 김진혁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전남대학교뿐 아니라 우리 컨소시엄이 함께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학교육 혁신과 우수 인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CNU INNOVATION CENTER
FOR ENGINEERING EDUCATION
공학교육혁신센터



2025
NEWS

『2025 바이오소재분야 이론 및 실무교육』 개최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지난 9월, 3주간 「2025 바이오소재분야 이론 및 실무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천연물로부터 생리 활성물질을 추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교육 과정은 △천연물 기반 생리 활성물질 추출 이론 △열수 및 알코올 용액을 활용한 추출 실습 △세포독성 측정 이론 △세포배양을 통한 독성 실험 △추출 물질의 세포독성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바이오 소재 연구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론 수업도 매우 흥미롭고 유익했지만, 직접 실험을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생명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특히 실습 교육이 포함된 점이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와 성취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바이오에너지 및 바이오소재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